

\* 자신의 유년시절과 작가로서 인연을 맺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작가가 된 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늘 그리는거 좋아하고 말하는거 좋아했습니다.

어린시절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개구리도 잡아먹고 모든 풀들을 직접 먹어보며 먹을수 있는 진달래와 아카시아 줄기 까마중 등등..그리고 속이 비릴땐 싱아를 먹기도하고...저희집은 젓소목장과 농사를 지어서 소가 새끼를 낳을때 돕기도 하고 소 젓도 짜고 딸기나 수박 등등도 재배해서 먹었죠. 또 원더우먼 옷(엄마가 대충 만들어주신) 을입고 얇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팔도 부러져보고 어린 동생을 괴롭히는 동네 개구쟁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억들이 작업의 재료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와 떨어지는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심한 분리불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모든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대되서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그런 불안한 심리상태를 극복하는데 작업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제작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매번 개인전을 잡을때 이번 개인전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2-3년전에 미리 구상해뒀던 것들이 개인전 날짜가 잡히면서 더 구체화되고 어떤 한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관련 서적을 읽거나 구체적인 전공서적을 보며 컨셉을 이론화 시킵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각 작품마다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나면 사진을 찍을 장소를 리서치한뒤 각 계절별로 1-2년동안 찍을 곳을 정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찍어온것들을 포토샵을 이용해 오래 붙이면서 사진을 완성해 나갑니다. 절대적으로 직접 찍은 사진만을 사용하며 찍는것 오리는것 모두 혼자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2년에 10장 내외의 작업만 완성할수 있습니다.

\* 작업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는 너무 많습니다. 보통 제가 사진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기자인줄 오해하시고 동네의 이런 저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또는 제가 찍는곳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설도 알려주시고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은(특히 일곱살 찍을때) 음...일명 거지라고 칭하는 동네 불량자들이신데 물끄러미 저를 보시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합니다.

\* 사진 콜라주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이유는?

원래 저는 조각 전공입니다. 한국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설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키가 작은 왜소한 동양여자이다 보니 자꾸 큰 작업만 하게 됐죠. 제 스스로도 감당이 안될만큼 커지는 작업앞에서 작업설치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뭔가를 만들기 앞서 누구에게 이 큰 작업의 설치를 부탁하느냐는 고민으로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작업의 부진으로 보여졌고 어느 순간엔 제 마음이 작업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만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매체를 찾다 사진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배워본적도 없었기에 제 맘대로 찍고 오려붙이기를 했는데 어느날 포토샵을 알게 되면서 디지털로 오려붙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작품의 주제는?

모든 작품의 주제는 저의 꿈과 고민들입니다. 제 친구들의 꿈과 나의 절박함,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느끼는 어려움들, 가족들간의 갈등...이론적으로 잘 아는 해결방법들이 실제로는 전혀 안통하다 보니 작업으로나마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또는 제가 그 갈등과 화합을 하기위해 했던 나만의 방법들을 작업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 몇가지 작품(알리고 싶은 작품)에 대한 소개?

생각보다 제 작업은 많지 않아 다 소개하고 싶어서 몇가지로는 축약이 안됩니다.

\* 자신에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교가 안되겠지만 제 유전자를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가는 말로 할수 없는것, 글로 표현 할수 없는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방법을 떠나 나만의 의사소통방법으로 작업을 만들다보니 제의 대부분이 작업에 드러나게되고 저를 많이 닮아있거나 제가 되고 싶은 이상형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이와 비슷하다하면 과장일순 있겠지만....아이를 만드는데 같은것, 그런의미로 작업을 합니다.

\* 작업때 가장 엄두해 두는 부분과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등등, 실제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들의 핵심 스토리를 절대 제 맘대로 바꾸지 않는다, 즉 그런 요소를 넣으면 사진이미지가 안좋다든가, 안예쁘다의 이유등으로 오리지널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다는데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특징이라면 노동집약적 작업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지요~이거때문에 지병에 시달리고 있으니깐요...생각해보니 특징이 아니라 완벽하고 싶은 욕심인듯 합니다, ㅎㅎ

\* 작가이기에 어려운 점과 행복한 점?

"작가"라는것은 직업의 한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업이었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놀기도 쉬기도 하겠죠. 또 작업실에서 집으로 왔을땐 그 생각을 접기도 해야할겁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휴가도 휴일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건 작업을 하기위한 여행이고 잠을 자도 작업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술도 잠시 끊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작업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완전히 작업에 빠져들었을땐 너무 행복하다가도 작업으로부터 벗어날수 없을때, 많은것을 포기해야할때 너무 힘듭니다.

\* 앞으로의 작업방향은?

작업중입니다. 작업이 나오면 작업방향이 보일겁니다.